



STIMIA

Bulletin

회원기관 소개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지식정보과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1976년 우리나라 화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성과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은 설립 이래 국내 화학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이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의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약, 화학소재, 지속성장 화학기술을 3대 연구 분야로 선정하고 전략목표 'KRICT 316'을 수립하는 등 그린사회를 구현하는 화학전문 선진연구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의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 최근 도서실과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의 합병으로 30년 동안 축적된 서지정보와 화학 관련 고급정보의 이용 효율 상승과 정보흐름의 일원화가 가능하며 정보업무의 집중화로 정보 제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 혁신의 하나로 정보시스템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여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류의 장소 마련과 이용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e-Library 구축과 환경 개선을 하였다.

도서실과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의 통합을 계기로 하여 지식정보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잡지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보고서 DB와 정밀화학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기존의 도서관을 e-도서관으로 개편하여 새로이 오픈하고 횡적 커뮤니케이션과 종적 커뮤니케이션을 만족하는 정보길잡이로서의 정보교류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의 공식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국화학연구원의 북카페는 기존의 도서관과 달리 차를 마시며 토론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이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컴퓨터와 회의실 등이 배치된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북카페는 연구자 상호간의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정보교류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정보서비스 환경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첨단 환경개선을 통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협의를 위한 정보체계의 실현이 가능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시공을 뛰어 넘는 정보의 욕구 충족 등의 명실상부한 지능적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서 인터뷰



박재학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1. 현재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현재 우리 연구원은 정식명칭으로 도서관은 없습니다. 정밀화학정책 연구센터입니다. 업무는 DB나 인쇄물, 온라인상의 전반적인 정보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2.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도서관은 앉아서 기다리는 역할로 충분하였지만 점차 컴퓨터의 발달로 제 자리에서 정보검색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안일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찾아오는 정보실, 휴식공간으로서의 정보실의 역할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도서관 리모델링을 한 후 업무가 내·외적으로 달라진 점은?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는 1일 5-10명이었으나 북카페의 설치 후에는 1일 50-70명의 이용자가 방문합니다. 북카페에 설치된 세미나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으며, 연구원 내의 사람에게 외부방문자가 내방하였을 때에도 휴게실이나 기타 접대를 하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타 도서관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우선은 각각의 기관별 특성을 잘 살려야 합니다. 재원에 맞도록 그리고 내부인의 불평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데 북카페를 일단 완공하고 나면 불평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카페는 휴식과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설계하여야 하며, 간단한 교양서적 위주로 잡지를 배가해야 합니다.

5. 도서관의 역할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하게 될 사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후의 사서는 정보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정보를 가져가도록 하는 역할보다는 미리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6. 전문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도서관은 위낙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통일된 서비스와 획일적인 전통의 도서관 이미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제 분야별 전문도서관은 주제 분야의 다른 기업체나 사설도서관과의 정보교환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절한 정보를 구성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정보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정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정부 관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큰 소득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자의 기관에서 설득력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7. 끝으로, STIMA Bulletin 독자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분야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학도서관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배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지식정보과

1976년 전기기기시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KERI)은 경남 창원에 본원을, 경기도 의왕과 안산에 분원을 두고 있는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4년 연속 기관평가 '우수 출연 연구기관', 2년 연속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과학기술계 대표 출연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력통신시스템, 발전소계측제어시스템, 초고압 차단기 및 개폐기, 전력변환장치, 고효율 고속전동기, 고온초전도 기기 및 케이블, 리튬2차전지, 전력용 반도체, 전자파 환경, 의료영상진단기기 등 전통적인 전기기술을 포함한 기초 원천 기술에서부터 차세대 전자가속기, 테라헤르츠파, 영상의료기술에 이르는 첨단융합기술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전력기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 국내 전력기기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세계 3대 공인 전력기기시험인증 기관 중 하나이다.



도서관 소개

1. 직원 현황 : 오한호(도서총괄), 김경미(도서담당)

2. 장서 현황 :

자료관리 형태		보유자료	
		DB	내역
단행본		9,170권	
규격	인쇄	3종	JIS, JEC, JEM
	전자	6종	KS, IEEE, ANSI, UL, NEMA, IEC
저널	인쇄	324종	국내, 일본
	전자	10,735종	IEL, AIP, IOP, Science Direct, JJAP
연구보고서	제본	4,600권	국내, 일본, 구미
	대내	8,914권	
계			11,068종 22,684권

3. 정보 서비스

- 단행본의 구입(수서) 및 목록, 대출
- 학술잡지(인쇄) 관리
- 전자저널, 전자규격 계약 및 서비스
- 원문신청서비스
-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 그 외 한국전기연구원 도서관 대외적 홍보, 도서관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유치 등

4. 향후 계획

2007년도 구축된 전자도서관을 홍보, 교육함으로써 도서관 활용을 사용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증대하고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자도서관 메뉴별 사용자 통계 분석에 의한 기술정보 서비스의 방향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전자정보매체 운영 및 자료 제공으로 기술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사서 인터뷰



오한호
한국전기연구원 지식정보과

1. 현재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현재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도서관에서 단행본 구입(수서) 및 목록, 대출, 학술잡지(인쇄) 관리, 전자저널 및 전자자격 계약 및 서비스, 원문신청서비스,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그 외 한국전기연구원 도서관 대외적 홍보, 도서관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유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 작년에 오픈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연구원의 전자도서관은 시스템 전체가 웹으로 개발되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가능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화면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 하나의 화면에서 많은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웹 미들웨어를 도입하여 다수 사용자 접속 시 분산처리를 통한 최대한의 처리속도를 보장하였고 전문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대용량 자료의 검색속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전자도서관 메뉴 중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Process 개선을 통한 실시간 도서 자산 취득 가능

- 희망 신청 도서 및 연구원 구입 도서를 MIS와 연계하여 실시간 자산 관리용이

2. 전자도서관 시스템 도입

-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통합검색, 메타검색, 맞춤정보서비스 등)
-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확장(전자구적, 전자저널 등 One-Site에서 이용 가능)
- 정보 검색 및 원문입수기간 단축(원문신청자료 및 보고서를 도서실에서 PDF로 변환하여 제공)
- 웹기반 도서관 시스템 구축(Proxy 시스템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문신청 및 열람 가능)

3. 도서관 리모델링을 한 후 업무 내·외적으로 달라진 점은?

저활용 도서 폐기 및 모빌렉 설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도서실 총 99평중 49%인 48.8평의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에 지식사랑방, 산업직원교육장, 전시물보관창고, 멀티미디어실 등이 구축되는 등 도서실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지식사랑방은 안산, 의왕 직원의 창원 출장 시 마땅한 대기공간이 없어 불편하였던 점을 해결하여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한 잔의 차와 더불어 도서 및 인터넷 정보검색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직원 간 정보 교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관계 방문자, 협력업체, 창업보육센터 등 대외업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끝으로, STIMA Bulletin 독자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이나 대전 등과 멀리 떨어진 창원에 위치하여 협의회 활동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본원에서 열린 전자도서관 시스템 오픈식에 먼 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님 이하 많은 회원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는 등 늘 신경써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전문도서관들의 협의체인 저희 STIMA가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